

15·6세기 ‘者’系 形聲字 한자음에 나타난 상고한음의 영향

- 성모 ‘ㄷ, ㅅ, ㅈ’의 분화 과정을 중심으로 -

장 천 (전북대)

< 목 차 >

1. 들어가기
2. 15·6세기 문헌에 나온 ‘者’系 형성자
의 성모 양상
3. ‘者’系 形聲字의 한국 한자음 성모
분화
4. 나가기

국문초록

상고한음에서 중고한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어 성모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 한자음은 한어의 음을 수용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았다. 형성자의 운모·운미는 그의 성부의 운모·운미와 같고, 형성자의 성모는 그 글자의 성부의 성모와 같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한자음에서도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근원음(根源音)을 찾고 그 성모의 분화 원인을 규명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의 근원음을 찾고 그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핵심어: ‘者’계 형성자, 근원음, 성모 분화, 15·6세기 문헌; 중고한음; 상고한음

1. 들어가기

『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문자 사용은 한자 위주였다. 한국 한자음의 모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5세기의 남조 吳音說이 있고, 6·7세기의 長安音說이 있으며, 8·9세기의 慧琳의 長安音說이 있다. 또 10세기 송나라의 開封音說도 있다. 그리고 중국 隨唐 시대의 절운계(切韻系) 운서의 음운체계를 반영한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설들은 한국 한자음의 모태가 中古音¹⁾에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절운계 中古音을 수용한 형성자(形聲字) 및 중세국어 자료에 나온 한자음을 통해 한국 한자음이 중국 上古音과도 交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한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형성자 혹은 諧聲字는 形符와 聲符로 구성되며, 形符가 그 글자의 뜻을 나타내고 성부가 그 글자의 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성부가 ‘付’인 형성자 ‘駙, 腑, 拊, 洑, 鮪’ 등은 동일하게 ‘부’로 읽고, 현대 한어에서도 ‘fu’로 읽는다.³⁾

- 1) 이돈주(1995:29~35)에 의하면, 중국 한자음에 대한 시기적 분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주로 기원 후 3세기까지인 先秦·兩漢時期를 上古音時期로, 魏晉南北朝에서 13세기인 兩宋까지를 中古音時期로, 그 이후에서 청나라까지는 近代音時期로, 그리고 20세기 이후를 現代音時期로 나눈다.
- 2) 한국 한자음 중에는 중고한음의 체계에만 의지해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한국 한자음은 상고한음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러나 형성자 성부가 동일한 형성자라고 할지라도 聲母가 여러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訓蒙字會』에서 ‘者’계 형성자인 赭·煮는 성부 ‘者’와 같은 ‘자’로 표음되어 성모가 동일한 ‘ㄷ’이다. 都·賭는 ‘도’로 표음되고, 署·薯는 ‘서’로 표음되어, 각각 성모가 ‘ㄷ’과 ‘ㅅ’으로 성부의 성모와 달리 나타난다.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는 같아야 한다. 왜 한국 한자음에서도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가 다르게 나타났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성부가 ‘者’인 형성자를 대상으로 그 형성자들의 상이한 성모 양상을 살펴보고, 그 양상 분화의 과정과 분화 원인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⁴⁾ 주로 『六祖法寶壇經諺解』(1496), 『翻譯小學』(1518), 『小學諺解』(1587), 『訓蒙字會』(1527)⁵⁾, 『新增類合』(1576)⁶⁾에 출현하는 ‘者’系 형성자들의 성모를 확인하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者’系 형성자 성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者’계 형성자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한자음 중 성부의 성모가 정치음(正齒音)⁷⁾인 대부분의 형성자에서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인 성모가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正齒音인 성부의 성모가 설두음과 설상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둘째,

3) 이하에서 성부가 X인 형성자는 ‘X계 형성자’로 부른다. 陳新雄(1983:67)은 “해성 글자의 경우, 성모는 반드시 새로운 글자와 음이 같다. 그러므로 무릇 X聲을 따르는 것은 그의 운은 반드시 성부의 운과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然諧聲之字, 聲母必與新字同音, 故凡從某聲, 韻必相同或相近).”라고 하였다.

4) 지금까지인 연구는 한국 한자음의 모태가 주로 中古音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따라 설명할 수 없는 예외들이 존재한다.

5) 『訓蒙字會』는 각 한자 밑에 작은 글자로 그 한자의 음과 뜻을 달았다. 『訓蒙字會』는 비록 『東國正韻』보다 늦게 편찬되었지만, 실제 사용되는 ‘전래 한자음’을 수록하였다.

6) 이하 각각 『六』·『翻譯』·『小』·『訓』·『新』으로 줄여 부른다.

7) 七音의 音名에 대한 현대 음운학적 명칭과 대비는 이돈주(1995:39)를 따르되, 중국 한자음에 대한 기술에서는 七音 음명을 사용하고 한국 한자음에 대한 기술에서는 현대 음운학적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기존 한자음의 연구에서는 ‘耑’系 형성자의 성모가 ‘ㄷ’이 아닌 ‘ㅅ’과 ‘ㄷ’으로 나타난 것이 예외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본고는 근원음, 즉 형성자의 본래음으로 인하여 성부와 달리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형성자의 본래음을 찾아서 이 예외를 타당성 있게 해석하고자 한다.

한어 학계에서 형성자에 대한 연구는 청나라 때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시경』, 형성자, 異文 등을 상고음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⁸⁾ 이를 통해 상고음 연구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이돈주(1995:251-235)에서 제시한 錢大昕의 ‘古無輕唇’·‘古無舌上音’설이 학계에서 확립되었다. 陳新雄(1983)은 상고한음의 음운체계에 대해, 黃侃이 제시한 古韻 28部와 古聲 19紐 주장을 따르고 있다. 竺家寧(1992)은 형성자는 상고한음을 재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고 서술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논술을 토대로 상고 한어 및 중고 한어 성모와 운모체계를 재검토하였다.

국어 학계에서는 권인한이 형성자를 고대국어 한자음을 재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권인한(1996)은 駕洛國號의 異表記들을 중심으로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권인한(2003)의 신라 관동 異表記들에 나타난 동음관계의 연구에서, 한어 상고음에서 중고음에 이르는 음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고대 한국 한자음이 한어의 중고음 또는 그 계통의

| | |
|-----|---------------------------------|
| 牙音 | 軟口蓋音(dorso-velars) |
| 舌頭音 | 舌端齒槽音(apico-alveolars) |
| 舌上音 | 舌面前音(dorso-prepalatals) |
| 脣重音 | 兩脣音(bi-labials) |
| 脣輕音 | 脣齒音(labio-dentals) |
| 齒頭音 | 舌端齒音(apico-dentals) |
| 正齒音 | 捲舌音(retroflexes)과 舌面前音(dorsals) |
| 喉音 | 聲門音(glottals)과 喻母 |
| 半舌音 | 舌側音(laterals) |
| 半齒音 | 舌面鼻音摩擦音(dorso-nasal fricatives) |

8) 異文은 고대 문헌에서 하나의 어휘를 나타낸 한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어 표기된 것이다(이돈주 1995:17).

음계를 모태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토지유키(2011)는 15·6세기 문헌에 나타난 한자음을 대상으로 중고한어의 성모와 한국 한자음 초성의 기본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의 저술에서 순음이 ‘ㄴ, ㅍ’ 이외의 자음으로 실현된 것, 端·透·定母와 知·徹·澄母가 ‘ㄷ, ㅌ’ 이외의 음으로 나타난 것, 精·淸·從, 莊·初母, 章·昌母가 ‘ㄱ, ㅋ’ 이외의 자음으로 나타난 것 등을 예외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가 예외로 처리한 것들이 과연 진정한 예외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5·6세기 ‘著’계 형성자의 한자음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먼저 고대 국어의 자음체계와 상고한어의 성모체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무림(1998:24-25)에서는 고려 시대 이전의 한국어 자음체계를 14자음으로 설정했다.⁹⁾ 한어 상고음의 자음체계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黃侃이 제시한 19紐에 대해 동의한다.¹⁰⁾ 고대 한국어와 상고 한어 자음체계의 차이점을 좀 더 세분하면, 첫째, 상고한음에 해당하는 전탁음이 고대 한국어 자음체계에 없다. 둘째, 상고한어 성모체계에 후음이 3개 있지만 고대 한국어는 1개만 존재한다. 셋째, 상고한음에 있는 설음 來母가 고대 한국어 자음체계에 없는 반면에, 고대 한

9) 일반적으로 한국어사는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의 시기로 구분된다. 이 중 고대 한국어는 삼국 시대부터 14세기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무림(1998:24-25)의 것을 참고하여 고대 한국어의 자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 | | 양순음 | 치경음 | 경구개음 | 후음 |
|-----|----|------------------|-------------------|------------------|-----|
| 파열음 | 무기 | ㅂ p | ㄷ t | ㄱ k | |
| | 유기 | ㅍ p ^h | ㅌ t ^h | ㅋ k ^h | |
| | 무기 | ㅁ m | ㄴ n | ㅇ ŋ | |
| 파찰음 | 무기 | | ㅅ ts | | |
| | 유기 | | ㅆ ts ^h | | |
| 마찰음 | 유기 | | ㅅ s | | ㅎ h |
| 유음 | | | ㄹ r | | |

10) 竺家寧(1992:562-563)과 文璇奎(1987:236-242)의 논의를 참고하여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국어에 있는 유음 ‘ㄹ’이 상고한음 성모체계에 없다.

15·6세기 한자음 연구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고대 한국어와 중세 한국어 자음체계의 상호 관련성이다. 중세 한국어 자음체계¹¹⁾를 고대 한국어의 자음체계와 비교하면 주로 2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하나는 경음 ㅃ, ㄸ, ㄲ, ㅆ, ㅍ, ㅎ 이 추가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성음인 ‘빙’과 ‘△’이 추가된 것이다.

2. 15·6세기 문헌에 나온 ‘者’系 형성자의 성모 양상

15·6세기 문헌에 나온 ‘者’系 형성자의 성모는 성부가 같은 형성자들처럼

| | | | | | | |
|----|------|-------|------|-----|-----|-----|
| | 全清 | 次清 | 全濁 | 次濁 | 又次清 | 又次濁 |
| 후음 | 影 ʔ | 曉 x | 匣 ɣ | | | |
| 아음 | 見 g | 溪 g' | | 疑 ŋ | | |
| 설음 | 端 t | 透 t' | 定 d' | 泥 n | | 來 l |
| 치음 | 精 ts | 清 ts' | 從 dz | | 心 s | |
| 순음 | 幫 p | 滂 p' | 並 b | 明 m | | |

- 11) 김무림(1998:10)에서는 『훈몽자회』를 비롯하여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15·6세기 문헌들을 대상으로 중세 한국어 자음체계를 제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 | | | | | |
|-----|-----|------------------|-------------------|------------------|------|
| | | 양순음 | 치경음 | 경구개음 | 후음 |
| 파열음 | 평음 | ㅃ p | ㄸ t | ㄱ k | |
| | 격음 | ㅍ p ^h | ㅌ t ^h | ㅋ k ^h | |
| | 경음 | ㅃ p' | ㄸ t' | ㄱ k' | |
| | 비음 | ㅁ m | ㄴ n | ㅇ ŋ | |
| 파찰음 | 평음 | | ㅈ ts | | |
| | 격음 | | ㅊ ts ^h | | |
| | 경음 | | ㅉ ts' | | |
| 마찰음 | 평음 | | ㅅ s | | ㅎ h |
| | 경음 | | ㅆ s' | | ㅎ h' |
| | 유성음 | 빙 β | △ z | | |
| 유음 | | | ㄹ | | |

보이지만, 사실 성부가 다른 형성자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鍤’는 ‘是’, ‘韃’는 ‘韋’ 형성자이다. 한국 한자음은 전자가 ‘시’이고, 후자가 ‘위’이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 ‘者’계 형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六』·『黼』·『小』·『訓』·『新』 등 중세국어 자료에서 ‘者’계 형성자를 추출한 후에, 다시 중국 문헌 『說文通訓定聲』¹²⁾에서 이들이 성부가 같은 형성자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는 ‘者’계 형성자들이 『說文解字注』와 『說文通訓定聲』에서는 ‘從X者聲’¹³⁾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者’系 형성자의 중세 문헌 표음 양상

| 한자 | 음 | 출현 문헌 | 초성의 조음방법 |
|----|---|---|----------|
| 屠 | 도 | 〈訓下 5b〉, 〈黼七 21a〉, 〈小五 54a〉 | 파열음 |
| 賭 | 도 | 〈訓下 10a〉, 〈小五 33b〉, 〈黼六 36a〉, 〈新下 45a〉 | |
| 都 | 도 | 〈訓中 4b〉, 〈黼六 4a〉, 〈小五 3b〉, 〈新上 19b〉 | |
| 覩 | 도 | 〈訓下 12a〉, 〈新下 23a〉 | |
| 儲 | 더 | 〈訓中 1a〉, 〈黼十 14a〉, 〈小六 113a〉, 〈新下 17b〉 | |
| 滌 | 더 | 〈訓上 3a〉, 〈新下 50b〉 | |
| 楮 | 더 | 〈訓上 5b〉, 〈新上 9a〉 | |
| 箸 | 더 | 〈黼四 26a〉, 〈小三 23b〉 | |
| 著 | 더 | 〈黼六 17a〉, 〈小二 27a〉, 〈新上 10a〉 | |
| | 탁 | 〈黼六 6a〉, 〈小二 1b〉, 〈新上 10a〉 | |
| 猪 | 네 | 〈訓上 10a〉, 〈新上 14a〉 | |
| 者 | 자 | 〈六序 5a〉, 〈黼三 4a〉, 〈小六 6a〉 | 파찰음 |
| 楮 | 자 | 〈訓中 14b〉 | |
| 渚 | 저 | 〈訓上 2b〉 | |

12) 청나라 때에 朱駿은 『說文解字』를 上古 韻部에 따라 改編하고, 성부가 같은 글자들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說文通訓定聲』을 편찬했다. 따라서 『說文通訓定聲』은 성부가 같은 形聲字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13) ‘從X者聲’은 성부가 ‘X’인 ‘者’계 형성자라는 의미이다.

| | | | |
|---|---|------------------------------|-----|
| 煮 | 차 | 〈訓下 6a〉 | 마찰음 |
| 藹 | 차 | 〈訓下 4b〉 | |
| 諸 | 제 | 〈六序 6b〉, 〈飜三 40a〉, 〈新上 16b〉 | |
| | 저 | 〈小六 108b〉 | |
| 奢 | 샤 | 〈六下 70a〉, 〈飜六 20a〉, 〈小五 18b〉 | |
| 閨 | 샤 | 〈六下 70b〉 | |
| 緒 | 셔 | 〈飜十 8a〉, 〈小六 107b〉, 〈新下 51a〉 | |
| 諸 | 셔 | 〈新上 7a〉 | |
| 晷 | 셔 | 〈訓上 1a〉, 〈飜四 10b〉, 〈小三 9b〉 | |
| 曙 | 셔 | 〈訓上 1b〉 | |
| 薯 | 셔 | 〈訓上 7b〉 | |
| 署 | 셔 | 〈訓中 4b〉 | |

【표-1】에서 제시한 ‘者’계 형성자를 보면 성모는 ‘ㄷ’, ‘ㅈ’, ‘ㅅ’ 3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陳新雄(1983:67)에 따르면, 성부가 같은 형성자라면 성모가 일치해야 정상적인데, 한국 한자음 禪母와 晷母인 ‘者’계 형성자의 성모는 원칙적으로 마찰음인 ‘ㅅ’으로 나타나지만, 破찰음인 ‘ㅈ’으로 나타난 예도 적지는 않다. 이처럼 ‘者’계 형성자의 한국 한자음의 성모가 다른 이유를 찾으려면 그 한자음의 근원음을 확인해야 한다.

3. ‘者’系 形聲字의 한국 한자음 성모 분화

3.1 ‘者’系 形聲字의 한국 한자음 성모 분화 유형

1) 성모가 ‘ㄷ’인 ‘者’系 형성자

【표-2】 성모가 ‘ㄷ’으로 나타난 ‘者’系 형성자

| 한자 | | 현대 한국 한자음 | 현대 한어 한자음 | 字母 ¹⁴⁾ | 又音 | 又切 |
|----|---|--------------|--------------|-------------------|----|----|
| 都 | 도 | 도 | dū | 端 | | |
| 賭 | 도 | 도 | dǔ | 端 | | |
| 覩 | 도 | 도 | dù | 端 | | |

| | | | | | | |
|---|------------------|---|----------|---|------------------|----------|
| 滯 | 더 | 저 | zhū | 知 | | |
| 猪 | 테 | 저 | zhū | 知 | | |
| 箸 | 더 | 저 | zhù | 知 | | 遲倨 |
| 著 | 탁 ¹⁵⁾ | 착 | zhuó | 知 | | 陟慮/張慮/直略 |
| | 더 | 저 | zhù, zhe | 定 | | |
| 楮 | 더 ¹⁶⁾ | 저 | chǔ | 徹 | | 當古 |
| 屠 | 도 | 도 | tú | 澄 | 徒 ¹⁷⁾ | |
| 儲 | 더 | 저 | chǔ | 澄 | | |

【표-2】에 제시된 ‘著’계 형성자의 성모는 15·6세기 문헌에서 주로 ‘더’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부 ‘著’는 『六』, 『飜』과 『小』에서의 표음이 ‘자’이고 중고한음에서는 성모가 正齒音인 章母字이다. 陳新雄(1983:67)에 따르면 章母인 正齒音이 설상음 및 설두음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 14) 字母는 方塊字를 말한 것이다. 특정한 方塊字를 이용하여 한 성모를 대표한 것이다(竺家寧 1992:237). 예를 들어, ‘端’이란 方塊字는 [t], ‘透’는 [tʰ], 定은 [dʰ]이란 음을 나타낸다.
- 15) ‘著’는 又音字, 즉 음이 2개 이상인 글자로, 성모가 定母인 경우에는 ‘더’로 표음되고 성모가 知母인 경우에는 ‘탁’으로 표음된다. 후에 구개음화와 음절부음 탈락으로 각각 ‘저’와 ‘착’이 된 것이다.
- 16) 설상음인 徹母는 상고한음의 설두음인 透母에서 분화되었다. 즉 상고한음의 설두음 透母 [tʰ]는 6세기 쯤에 徹母인 [tʰ]로 분화된다. 이들은 치경음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유기 파열음 [t]에 가깝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6세기 한국 한자음에서는 성모가 [t]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모가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혼동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透母字인 土는 <六>, <飜>, <訓>에서는 ‘토’로 표음되고, 즉 성모가 유기음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孟子>에서는 ‘두’로 표음되며, 즉 성모가 무기음으로 나타났다. 같은 透母字인데 문헌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의 대립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유기음과 무기음을 혼동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17) ‘屠’는 澄母字와 定母字이다. 『설문해자』에서는 ‘從尸者聲, 同都切’의 定母字로 나타나지만 『절운』에서는 定·澄母의 2가지 성모로 나타난다. 즉 상고한음에서 定母인 ‘屠’가 중고한음에서는 定母와 澄母로 분화된 것이다. 또한 ‘是’계 형성자 ‘蹠’도 『훈몽자회』(하 4b/8b)에서는 澄母 ‘테’로 표음되고, 『설문해자』에서는 ‘從足是聲, 特計切’로 풀이되고, 성모는 定母로 나타난다. 그러나 절운에서는 定·澄母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중고한음의 설상음 澄母는 상고한음의 설두음인 定母에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고한음 성모 체계에 정치음이 없다. 따라서 중고한음의 정치음의 발달 과정을 찾아야 한다.

陳新雄(1983:1173)이 經籍異文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설두음인 端[t] · 透[tʰ] · 定[dʰ] 母는 3等 개음으로 인하여 西漢 中葉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설상음인 照[t] · 穿[tʰ] · 神[dʰ]으로 변했다. 漢代 이후에는 설상음인 照[t] · 穿[tʰ] · 神[dʰ] 母가 다시 파찰음인 [tɕ] · [tɕʰ] · [dʒʰ]로 약화되었다. 이것은 이돈주(2003:472)가 말한 것처럼, 여러 언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변화인 파열음의 파찰음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표-3】 정치음 ‘章·昌·船’의 분화 과정

| 상고음 시기 | 중고음 시기 | | |
|----------------------|----------------------|-------------------|----------------|
| | 西漢中葉 | 漢代以後 | 6世紀 쯤 |
| 端[t]透[tʰ]定[dʰ] h] | 端[t]透[tʰ]定[dʰ] | | 端[t]透[tʰ]定[dʰ] |
| | | | 知[t]徹[tʰ]澄[dʰ] |
| | 照[t]穿[tʰ]神[dʰ](照系3等) | 章[tɕ]昌[tɕʰ]船[dʒʰ] | |

중고한음 시기에 ‘者’의 성모는 正齒音인 章母였지만, 그 근원음은 상고한음의 舌頭音 端母였다. 따라서 ‘者’의 正齒音과 舌頭音이 통용될 수 있다. 舌上音인 知母, 徹母, 澄母의 근원음도 舌頭音이었기 때문에 ‘者’계 형성자와 통용될 수 있다.

端母와 知母, 徹母, 澄母는 중세 한국 한자음에서 모두 치조음 ‘ㄷ’으로 표음된다. 端母의 음가는 全清 舌頭 塞音 [t]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무기무성 치조 파열음인 ‘ㄷ’과 가깝다. 따라서 端母인 ‘者’계 형성자 ‘都, 賭, 觀’의 성모 일반적으로 한국 한자음에서 ‘ㄷ’과 대응된다. 그러나 【표-4】에서 제시된 성모를 ‘ㄷ’으로 나타난 ‘者’계 형성자에서 설두음인 端母 외에, 설면 전음인 知母, 徹母, 澄母로 나타난 것도 있다.

【표-4】 설음계 한국 한자음의 음가

| 성부 음가 (正齒音) | 성모 음가 | | |
|----------------|-----------|--------|--------|
| | 한어(舌音) | 중세 한국어 | 현대 한국어 |
| 章[tɕ] | 端[t](1等) | ㄷ | ㄷ |
| | 知[t](3等) | | ㅌ |
| | 徹[tʰ](3等) | ㅌ | ㅌ |
| | 澄[dʰ](3等) | ㄷ | ㅌ |

舌頭音인 端母, 透母, 定母와 舌上音인 ‘知母, 徹母, 澄母’는 중고한음에서 모두 舌音系에 속하지만, 『韻鏡』¹⁸⁾을 통해서 전자는 一·四등에만 나타나고 후자는 二·三等에만 위치한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고한음의 舌頭音과 舌上音은 출현 환경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한국 한자음의 모태가 중고한음에 있다면, 중고한음에 존재하는 舌頭音과 舌上音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5·6세기 한국 문헌에 나온 ‘者’계 형성자 중에서, 성모가 知·徹·澄母인 한자의 성모는 모두 치조 파열음이다. 이 사실도 한국 한자음이 ‘古無舌上音’이란 설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이는 한국 자음체계 때문에 한어의 설두음과 설상음을 구별 없이 수용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김주원(1997:34)은 구개음화가 전라방언에서 1560년대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 즉, 아마도 ‘ㄷ’ 구개음화 규칙이 전라방언에서 처음 생겼고, 그것이 점차 북상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知·徹·澄母인 3등자들이 반모음 -j-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 구개음화의 조건이기는 하나, 김주원(1997:34)의 주장에 따르면 【표-2】에 제시한 知·徹·澄母인 3등 ‘者’계

18) 『韻鏡』은 중국 오대시기(五代時期, 약 907~979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되는 最古의 韻圖이며, 隨唐의 한어의 발음체계를 圖解로 표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廣韻』의 206 韻을 韻頭에 따라 16攝으로 나누고, 이 16攝을 43장의 轉圖에 배열하였다. 각 轉圖에 가로 줄에는 다시 성모의 七音과 각 음의 清濁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해서 배열하였으며, 세로 줄에는 광운 韻目 및 4등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였다.

형성자는 그 때 당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조 파열음인 ‘ㄷ’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 후반기부터 한국 음운체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치조 파열음인 ‘ㄷ’에서 치조 파찰음인 ‘ㅈ’으로 변한다.

2) 성모가 ‘ㅈ’으로 나타난 ‘者’系 형성자

【표-5】 성모가 ‘ㅈ’인 ‘者’系 형성자

| 한자 | | 현대 한국어 한자음 | 현대 한어 한자음 | 字母 | 又音 | 又切 |
|----|-----|---------------|--------------|----|----|----|
| 者 | 자 | 자 | zhě | 章 | | |
| 渚 | 저 | 저 | zhǔ | 章 | | |
| 楮 | 자 | 자 | zhě | 章 | | |
| 煮 | 자 | 자 | zhǔ | 章 | | |
| 蠹 | 자 | 자 | zhù | 章 | | |
| 諸 | 제/저 | 제 | zhū | 章 | | 正奢 |

【표-5】에 제시한 ‘者’계 형성자의 성모는 모두 ‘ㅈ’이다. 앞 절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중고한음의 章母의 근원음은 상고한음의 설두음이다. 중고한음에서의 章母는 치경 경구개 파찰음 [t͡ɕ]인데, 중세 국어의 파찰음은 치경 파찰음밖에 없다. 이토지유키(2011:144)도 ‘精母, 從母, 莊母, 章母’는 ‘ㅈ’과 대응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중고한음을 수용한 한국 한자음의 ‘者’系 형성자는 【표-6】와 같이 성모가 ‘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6】 정치음 ‘章母’의 한국 한자음 음가

| 성부 음가 (正齒音) | 성모 음가 | | |
|----------------|-------|------|-----|
| | 중고 한어 | 중세국어 | 현대국 |
| | | | |

| | | | |
|------|----------|---|---|
| | | | 어 |
| 章[ㄷ] | 章[ㄷ](3等) | ㅈ | ㅈ |

그러나 이토지유키(2011:165)에서는 章母字의 성모가 ‘ㄷ’으로 나타난 것을 예외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蛭 · 榘(딜)’은 定母인 ‘蛭(딜)’과 知母인 ‘窒 · 銓’에 유추한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蛭 · 榘(딜)’은 定母인 ‘蛭(딜)’과 知母인 ‘窒 · 銓’에서 유추한 것이 아니다. 『說文解字』에서는 ‘蛭 · 榘 · 埵 · 窒 · 銓’이 모두 ‘從X至聲’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至’계 형성자이다. 蛭 · 榘 · 銓은 章母이며, ‘埵’은 定母이며, ‘窒’은 知母이다. 둘째, 章母와 知母는 상고한음의 端母에 소급되고, 定母는 상고한음에서도 定母이다. 端母는 무성 치경 파열음이고 定母는 유성 치경 파열음이다. 이들의 음가는 한국어의 무기무성 치경 파열음인 ‘ㄷ’에 가깝다. 따라서 ‘至’계 형성자의 성모가 ‘ㄷ’으로 나타난 것은 예외가 아니라, 상고한음의 잔존으로 보아야 한다.

3) 성모가 ‘ㅈ’인 ‘者’系 형성자

【표-7】 성모가 ‘ㅈ’으로 나타난 ‘者’系 형성자

| 한자 | | 현대 한국 한자음 | 현대 한어 한자음 | 字母 | 又音 | 又切 |
|----|---|--------------|--------------|----|----|----|
| 曙 | 서 | 서 | shǔ | 禪 | | |
| 薯 | 서 | 서 | shǔ | 禪 | | |
| 署 | 서 | 서 | shǔ | 禪 | | |
| 闇 | 샤 | 사/도 | dū/shé | 禪 | | 當孤 |
| 晷 | 서 | 서 | shǔ | 書 | | |
| 箸 | 샤 | 사 | shē | 書 | | |

【표-7】에서 ‘ㅅ’으로 나타난 ‘者’계 형성자의 성모는 주로 禪母와 書母로 나타난다. 禪 · 書母와 章母는 모두 정치음에 속한다. 중고한음의 성모체계에 따르면 禪母는 무기 유성 마찰음이고 書母는 무기 무성 마찰음이다. 그러나 형성자의 원리에 따르면 성부의 성모와 그 성부를 갖는 형성자의 성모가 일치해야 한다.

중고한음 시기의 정치음은 상고한음 시기의 치경 파열음에 소급되는데, 치경 파열음인 端[t] · 透[tʰ] · 定[dʰ]母는 西漢 中葉에 설상 치경 경구개 파열음 照[t] · 穿[tʰ] · 神[dʰ]로 변하고, 漢代 이후에 照[t] · 穿[tʰ] · 神[dʰ] 母가 다시 치경 경구개 파찰음인 [tɕ] · [tɕʰ] · [dʒʰ]로 약화되었다. 穿[tʰ]의 [+aspriation] 자질 때문에, 절운 시기에 일부 유기 성분이 강한 것은 마찰음인 書母가 되고 유기 성분이 약한 것은 여전히 파찰음인 穿母로 유지되었다. 禪母도 같은 방식으로 定母에서 분화된 것이다. 즉 중고음 시기의 정치음 章 · 書 · 禪母의 근원음은 모두 상고음 시기의 설두음이다. 따라서 章母인 성부 ‘者’는 書 · 禪母인 ‘者’계 형성자와 통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치경 경구개 마찰음인 禪 · 書母의 분화 과정은 【표-8】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8】 정치음 ‘書 · 禪’의 분화 과정

| 상고음 시기 | 중고음 시기 | | |
|--------|--------|--------|-------|
| | 西漢中葉 | 漢代以後 | 절운 시절 |
| 端[t] | 照[t] | 章[tɕ] | |
| 透[tʰ] | 穿[tʰ] | 昌[tɕʰ] | 書[e] |
| 定[dʰ] | 神[dʰ] | 船[dʒʰ] | 禪[z] |

중고한음에서 禪母와 書母의 음가는 한국어 자음체계에 따르면 각각 무기 유성 마찰음 [z]와 무기무성 마찰음 [ɕ]이다. 한국 자음체계에서 【표-9】와 같이 치조 마찰음 ‘ㅅ’으로 전사한다.

【표-9】 정치음 ‘禪 · 書母’의 한국어 음가

| 성부 음가 (正齒音) | 성모 음가 | | |
|----------------|----------|------|------|
| | 중고 한어 | 중세국어 | 현대국어 |
| 章[ʧ] | 書[ɕ](3等) | ㅅ | ㅅ |
| | 禪[z](3等) | | |

【표-9】와 같이 이토지유키(2011:165)에서도 ‘心母[s] · 邪母[z] · 生母[ʃ] · 俟母[ʃ] · 船母[dz] · 書母[ɕ] · 常母[z]’¹⁹⁾는 ‘ㅅ’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書母와 禪母의 성모가 ‘ㅅ’이 아닌 다른 성모로 나타난 것을 예외로 보았다. 예를 들어, 이토지유키(2011:167)는 禪母인 闇(자)는 章母인 ‘者(자)’에 유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闇’은 ‘者’계 형성자이지만 ‘闇’의 음이 ‘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15-6세기 문헌에서 ‘闇’의 독음은 ‘샤’와 ‘도’의 2가지이다.

『說文解字注』에 따르면, ‘闇’의 形符는 ‘門’이고 성부는 ‘者’이며, ‘從門者聲’이다. 反切法에 따르면 反切 上字는 ‘當’이고 反切 下字는 孤이다, ‘當孤切 五部’이다. 중고한음에서 ‘者’의 성모는 ‘章母’이지만, ‘當’의 성모는 端母이다. 중고한음의 正齒音의 근원음은 상고한음의 설두음이므로, ‘闇’의 독음이 ‘도’인 것은 문제가 없다.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闇’가 ‘샤’로 나타난다. ‘闇’의 성모가 ‘禪母’로 나타난 것은 범어 ‘acārya’를 ‘阿闍梨’로 표음한 것이다. 즉, ‘闇’의 성모가 禪母 ‘ㅅ’인 것은 불경을 한어로 번역할 때 추가한 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闇’는 의미에 따라 두 음으로 나타난다. ‘망루’의 뜻일 때는 성모가 ‘端母’이고, ‘사리’의 뜻일 때 ‘禪母’이다. 현대 한어에서도 뜻에 따라 ‘dū’와 ‘shé’ 2가지 음으로 나타난다.

書母 羶 · 臙(전L)은 章母인 氈(전L)에 유추되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羶 · 臙은 氈²⁰⁾에 유추된 것이 아니다. 『說文通訓定聲』에 의거하면

19) 이토지유키의 저술에 나온 常母는 禪母와 같다. 한어 학계는 주로 禪母라고 하는데 이토지유키는 常母라고 한다. 그의 음가는 [z]이다.

‘羶·臙·氈’은 성부가 ‘ㄹ’인 형성자이다. 또한 書母인 羶·臙은 ‘전’로 나타난 것은 예외가 아니다. 성부 ‘ㄹ’의 성모는 端母이다. 羶·臙의 성모는 書母이고 氈의 성모는 章母이다. 중고한음 章母의 근원음은 상고한음의 端母이고, 중고한음 書母의 근원음은 상고한음의 透母이다. 따라서 羶·臙·氈는 성부 ‘ㄹ’과의 조음위치가 같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다. 상고한음의 端母는 한국어의 치경음 ‘ㄷ’에 대응되었다. 상고한음에서 3等字인 치경 파열음은 介母의 영향을 받아 漢代 이후 파찰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羶·臙·氈의 성모는 ‘ㄷ’으로 나타난 것은 예외가 아니며, 書母인데도 ‘ㄷ’으로 나타난 이유는 漢代 이후의 음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3.2 ‘者’系 形聲字의 한국 한자음 분화 과정

【표-10】 ‘者’계 형성자 성모의 분화 과정

| 시기 성모 | | 上古音 | | 西漢 中葉 | 漢代 以後 | 6世紀 경 | 切韻 |
|----------|----------|----------------|----------------|----------------|----------------|----------------|----|
| | | | | | | | |
| 章 [스] | 端 | t | | t | | | |
| | 知 | t | | | | t | |
| | 徹 | t ^h | | | | t ^h | |
| | 澄 | d ^h | | | | d ^h | |
| | 照系3 等 | 章 | t | t | t | | |
| | | 書 | t ^h | t ^h | t ^h | | ɕ |
| | 禪 | d ^h | d ^h | d ^h | | ʒ | |

- 20) 『설문해자』에서는 羶·臙·氈가 ‘從X賣聲’으로 나타난다. 羶·臙·氈은 ‘賣’계 형성자처럼 보이지만 ‘賣’이 ‘從尙ㄹ聲’으로 나타난다. 『說文通訓定聲』에서도 羶·臙·氈이 ‘ㄹ’계 형성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羶·臙·氈’의 성부는 ‘ㄹ’이고 그 성모는 端母이다.

【표-10】을 통해서 중고한음에서 치경음인 端母, 치경 경구개음인 知·徹·澄 및 章·書·禪母의 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개음의 영향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상고음의 치경 파열음인 t, tʰ, dʰ가 먼저 치경 경구개음 t, tʰ, dʰ로 분화되고, 漢代 이후에 치경 경구개음이 파찰음인 tɕ, tɕʰ, dʑʰ로 바뀌었다. 그 후에 端母를 제외한 나머지 치경음이 치경 경구개음으로 분화된다. 절운 시기에는, ‘者’계 형성자의 성모도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3가지 유형이 있었다. 중고한음을 수용한 ‘者’계 형성자의 한국 한자음도 파열음인 ‘ㄷ’, 파찰음인 ‘ㄸ’, 마찰음인 ‘ㅅ’의 3가지로 나타난다.

치경음과 치경 구개음인 ‘者’계 형성자의 성모 양상은 15·6세기에 ‘ㄷ’으로 나타난다. 章母인 ‘者’계 형성자는 중고한음에서는 파찰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파찰음 ‘ㄸ’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5·6세기에 한국 한자음에서 章母字가 파열음인 ‘ㄷ’으로 나타난 것도 있다. 이는 예외가 아니라 西漢 이전의 상고음의 흔적이다. 또한 15·6세기에 書·禪母의 한국 한자음 양상이 마찰음이 아니라 ‘ㄷ’이나 ‘ㄸ’으로 나타난 것도 있다. 이것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 ‘ㄷ’으로 나타난 것은 漢代 이전의 음의 잔존이며, ‘ㄸ’으로 나타난 것은 절운 이전의 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15·6세기 한국 한자음에 상고한음의 흔적을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15·6세기에 章母字 성모가 ‘ㄷ’이 아닌 경우, 書·禪母字 성모가 ‘ㄸ’인 경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나가기

상고한음에서 중고한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어 성모체계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한자음은 한어의 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어 학계는 성부가 같은 형성자를 통해서 상고한음을 재구한다. 같은 원리로 성부가 같은 형성자를 통해 15·6세기 중세 문헌에서 나타난 한국 한자음의 성모 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예외로 처리되어 왔던 한자음을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六』·『飜』·『小』·『訓』·『新』에 나타난 성부 ‘者’를 갖는 형성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이 원리에 위반되는 예가 많다. ‘者’계 형성자의 성모는 15·6세기 한국 문헌에 주로 치조 파열음인 ‘ㄷ’, 치조 파찰음인 ‘ㅈ’, 또는 치조 마찰음인 ‘ㅅ’으로 3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치조 파열음 ‘ㄷ’으로 나타난 ‘者’ 형성자의 성모로는 주로 端母, 知母, 徹母, 澄母가 있고, 치조 파찰음 ‘ㅈ’으로 나타난 것은 주로 章母이다. 마지막으로 치조 마찰음 ‘ㅅ’으로 나타난 ‘者’계 형성자로는 禪母와 書母가 있다.

한국 한자음이 형성되면서 한어 성모체계 분화의 영향을 받아 성부가 같은 형성자의 성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15·6세기 한국 한자음에서 章·禪·書母 형성자의 성모가 치경 경구개음이 아니라 ‘ㄷ’으로, 또한 禪·書母 형성자의 성모가 마찰음이 아니라 ‘ㅈ’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예외가 아니라, 상고한음의 잔존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康熙字典』, 內府本
『康熙字典』, 同文本
『故訓匯纂』
『說文解字』, 汲古閣本
『說文解字』, 和刻本
『說文解字』, 孫刻本
『說文解字注』
『說文通訓定聲』
『六祖法寶壇經諺解』(상, 중, 하)(影印本), 弘文閣.
『訓蒙字會』, 叡山文庫(影印)本, 弘文閣.

2. 논저 및 단행본

- 권인한(1996),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 모색 - 가락국호의 이표기들을 중심으로」, 『울산어문논집』 11, 143-164면.
권인한(2003), 「신라관등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진단학보』 96, 149-171면.
권인한(2008),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서울: 제이앤씨.
김무림(1998), 「고대 국어 음운」, 국립국어원, 7-39면.
김주원(1997),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국어학회』 29, 33-49면.
杜金鵬(2010), 「韓·中國語 漢字音 變化 研究 - 翻譯老乞大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문선규(1987), 『중국고대음운학』, 서울: 민음사.
박병채(1982), 『고대국어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박병채(1987), 「한국 한자음의 모태와 변천」, 『국어생활』8, 6-14면.
Wang Liqun(2012), 「韓國漢字音 初聲과 漢語 聲母의 對照 研究 - 訓蒙字會

- 漢字를 中心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繼征(2015), 『중세국어 복수한자음 연구 -성모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돈주(1979), 『漢字學總論』, 서울: 博英社.
 (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서울: 塔出版社.
 (2003), 『韓中漢字音研究』, 서울: 태학사.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 이토지유키(著), 이진호(譯)(2011), 『한국 한자음 연구』, 서울: 영락.
- 李賢善(2008), 『『東國正韻』 漢字音 淵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郭蕊(2010), 『中國과 韓國의 漢字音 口蓋音化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董同龢(1972), 『漢語音韻學』, 學生書局.
- 潘重規. 陳紹棠(1978), 『中國聲韻學』, 東大圖書公司印行.
- 方紅霞(2008), 『從等呼角度看形聲字的諧聲關係』,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方桂(2015), 『上古漢音研究(第6次重印)』, 商務印書館.
- 張亞蓉(2005), 『<說文解字>諧聲字的音韻關係及上古聲母的討論』, 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
- 朱俊曉(2007), 『說文·人部形聲字字族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 陳思同(2008), 『從“喜”得聲之字詞義考』, 『畢節學院學報』96期, 98-100면.
- 陳新雄(1983), 『古音學發微』(3版), 文史哲出版社.
- 竺家寧(1992), 『聲韻學』, 五南圖書.
 (2016), 『語音學音之旅』, 新學林.

【Abstracts】

The influence of Old Chinese in 15·6 century Korea-Chinese's 'zhe' xiesheng

- Focusing on the Initial's differentiation of ㄷ, ㅈ, ㅊ -

Zhang, Qian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Old Chinese to Middle Chinese, there were many changes in the Chinese language system. Korea-Chinese was influenced because it accommodated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Most xiéshēng characters seem to follow the principle that, words must normally have identical main vowels and codas, and their initial consonants must have the same position of articulation. Generally, the initials of the Xiéshēng series, which have the same phonetic element should be the same. But some xiéshēng Character's Initials are different even though they have the same phonetic element. This phenomenon is not only in Sino-Chinese but also in Korea-Chinese. Therefore, this article will check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xiéshēng Characters which have the same phonetic element, and search the dividing process, the find their original sounds. And through the original sounds to explain some special case which was defended by the other scholars.

We choose the xiéshēng Characters with '자(者)' phonetic element of Korea-Chinese, which has never been explored as an object, in order to check their initials we extracted the '자(者)'xiéshēng Characters from the 15·6 century's literature.

Key Words: '者'xiesheng characters, Original sound, initial's differentiation, 15-6 century's Korea-Chinese, Middle Chinese, Old Chinese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